

“법조계·금융·회계 등 각계 전문가 모셔라”

제약사, 사외이사 영입 열전

리베이트 등 다양한 이슈
대처 위해 사외이사 선임
“주총 앞두고 인맥 넓히기”



제약업계가 3월 주총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외이사 선임에 나서고 있다. 사외이사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조언하는 외부 비상근 이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제약사들은 의료계 고위 관계자 위주로 사외이사를 선임했지만 최근에는 금융권, 회계, 법조계, 연구개발(R&D) 인력까지 분야가 다양해졌다. 이는 제약사들이 인맥 넓히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과 회계 분야 사외이사 영입에 나선 곳은 셀트리온, 에스티팜, 휴젤 등이다.

셀트리온은 인일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출신의 이요셉 회계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 할 예정이다. 이 회계사는 현재 동 회계법인 고문회계사로 재직 중이다. 셀트리온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조홍희씨도 재선임할 예정이다. 조사외이사 후보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다. 휴젤은 삼일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정병수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그

는 현재 ODK미디어 파이낸스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가족회사인 에스티팜은

중부지방국세청 출신 안형준씨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 할 예정이다. 안사외이사 후보는 현재 세무법인 하나의 부회장을 지내고 있다.

법조계 출신도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조준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재선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약품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출신이자 변호사 김순평법률사무소 출신 김순평씨 재선임을 상정했다. 삼천당제약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흥기종 법무법인 양현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비씨월드제약은 전만복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재선임할 계획이다.

R&D 전문가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JW생명과학은 현재 두산부회장으로 활동하는 이현순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그는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 담당 부회장을 역임했다. 셀트리온은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생명화학공학 실장 출신의 김동일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할 방침이다.

교수들도 사외이사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GC녹십자는 최운재 고려대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를, 한독은 서영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수와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를 각각 재선임한다.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외이사도 보인다. 일동제약이 서창록씨는 유엔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 위원이자 휴먼아시아 대표로 재직 중인 서창록씨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해병대 제1사단장 출신의 전병훈 한남대학교 무기체계 M&S 연구센터 예우교수를 재선임할 계획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리베이트, 회계 등 이슈에 대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약효 지속 시간이 단축되고 다음 번 약을 복용하기 전 몸 동작이 느려지는 운동동요증상이 나타난다. 파킨슨 환자의 대부분은 병의 진행이 수 년 이상 지속되면 운동 동요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젠티스와 같은 병용 치료제들은 레보도파의 효과를 연장 시켜 이 같은 증상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밀초 신경에서 레보도파 분해를 억제해 뇌로 전달되는 비율을 높이는 기전을 지닌 온젠티스는 임상 결과 기준 치료제인 ‘엔타카폰(Entacapone)’ 대비 Off-time(환자가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시간)을 유의하게 개선했다. 또 약물 관련 부작용으로 임상 시험을 중단하는 환자 비율은 엔타카폰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약물 부작용인 오심, 착색뇨 등의 수치는 낮게 나타났다.

/박민웅 기자

혔다.

온젠티스는 파킨슨 환자에게 부족한 뇌의 신경물질인 도파민을 보충하는 치료제인 레보도파(Levodopa)가 혈류 내에서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파킨슨 환자들이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레보도파는 장기 투여 시



입할 수 있다. 1병에 75ml로 만 15세 이상 기준 1회 1병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제품은 지난해 9월 광동제약이 조선무약의 상표권을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이는 품목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SK케미칼 전광현 파마사업 대표(왼쪽)와 포르투갈 최대 제약사 비알(BIAL) CEO 안토니오 포르텔라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SK케미칼 파킨슨치료제 국내 독점 공급

SK케미칼이 운동동요증상이 있는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를 국내에 공급한다.

SK케미칼은 포르투갈 최대 제약사인 ‘비알(BIAL)’이 개발한 파킨슨치료제 ‘온젠티스(Ongentys)’를 국내에 독점 공급키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건위소화제는 위장운동을 촉진해 음식물을 빠르게 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은 L-멘톨, 계피틴크, 건강틴크, 진피연조엑스로 특유의 청량감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솔표 위청수 에프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

광동제약 ‘솔표 위청수 에프’ 재출시

광동제약은 조선무약의 액상소화제 솔표 ‘위청수 에프’를 재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솔표 위청수 에프는 생약성분의 드링크제로 소화불량, 위부팽만감, 과식, 체함, 구역, 구토 등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건위(健胃)소화제다.

워라밸? 대한민국 자영업자에겐 ‘언감생심’

〈워크라이프밸런스·일과 삶의 균형〉

한달에 3일 쉰다

중기중앙회

주 6일·평균 11시간 근무
소상인 삶의 만족도 54점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워라밸’(워크라이프밸런스·일과 삶의 균형)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쉬는 날은 평균 사흘에 불과했고, 주 6일 동안 하루 평균 11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의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내놓은 ‘소상인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음식점업·소매업은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11.4시간, 11.1시간으로 응답자 평균(10.9시간)보다 많았다.

소상인이 느끼는 사업의 전반적 노동강도는 100점 만점에 65.6점으로

특히 40대 미만(61.0점) 대비 60세 이상의 만족도(48.4점)는 약 13점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일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삶의 만족도도 크게 높지 않았다. 소상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54.3점으로 조사돼 역시 2014년 발표 당시의 65.9점 대비 무려 11점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40대 미만(59.6점) 대비 60세 이상의 만족도(51.8점)가 7점 이상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가생활 만족도(38.1점)가 가장 낮았고 뛰어난 일과 삶의 만족도(54.3점), 주요 자료별 삶 만족도(41.3점)가 높았다. 반면, 사회적 관계지표인 가족관계(65.7점), 인간관계(62.2점), 어려 생활·자기개발·교육(38.1점)은 삶의 만족도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았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상직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항공기부품제조기업서
첫 외부 현장행보 시작



항공사 창업주 출신인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항공기 부품제조기업에서 첫 외부 현장행보를 시작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체기관으로 중소기업들에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상직 이사장은 직전까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중진공은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상직 이사장이 5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이날 취임식은 토크방식으로 이 이사장의 취임 소감, 비전 및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맨 앞)이 경남 사천에 있는 에스앤케이 항공을 일자리 창출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영철학을 듣고 직원들의 애로 사항, 희망 등을 전달하는 소통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 이사장은 “정부의 경제 철학인 사람 중심 일자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핵심기관인 중진 공 이사장 직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조성된 기금 규모가 17조 원에 달한다. 올해에도 정책융자사업 등 연간 8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개인투자조합 11건 위반행위 적발

중소벤처기업부

시범 조사한 결과, 13개 조합에서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발견,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5개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운영실태를 2011년 당시 고작 2곳에 그쳤던

개인투자조합은 2013년 29개, 2015년 89개, 지난해 282개 등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들이 결성한 투자액도 이 기간 9억→321억→446억→2022억 원으로 급증했다.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은 초기창업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A조합은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약 6억 원을 투자해 경고를 받았다.

또 B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 시정조치됐다.

/김승호 기자